

지구촌 불교

英서 '어린이 불교' 비디오 인기

부처님·진리·스님·명상 주제로 구성

크리에이티브가 제작한 <어린이 불교> (Buddhism for Key Stage) 비디오가 영국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영국 종교교육계에 주목을 받고 있는 <어린이 불교> 비디오는 부처님, 진리, 승려, 신앙 등의 네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60여명에 이르는 교습용 안내서를 비롯 피교육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토론주제 등 교육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제공되고 있다. 영국의 종교 교육담당자들은 "지금까지 불교는 어린이에게 교육하기 힘든 종교였으나, 이 비디오를 통해 기존의 통념이

사라졌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어린이 불교> 비디오를 사용해서 교육에 참여한 바 있는 에쉬라 아놀드(9세) 역시 "중교수업을 교육받은 이래 불교야말로 최대의 관심사다"라고 말하며 <어린이 불교> 비디오의 인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불교의 진리를 어떤 학생의 마음에 심어준다면 멀지않아 미래사회를 혁신시킬 것이라는 믿음을 지닌 크리에이티브는 현재 미국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 불교 2>, 11세부터 14세가 볼 수 있는 <어린이 불교 3>, 유아용 교육 비디오 등을 계속 제작할 계획이다. <육>

日종교법인법 개정 탄원서등 반대여론

일본의 '종교법인법 개정안'이 지난달 17일 임시국회에 제출됨으로 일본각계의 비판, 고발의 목소리가 크게 일고 있다.

음진리교 사건으로 개정논의가 본격화되어 문부장관 자문기관인 '종교법인 심의회'가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광역종교법인의 관할청을 문부성으로 이관 △재무회계를 관할청에 제출 △법인의 활동내용 공개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재산회계를 공개하는 내용에는 경내지나 보시금수입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이 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를 통해 여당은 참가학회의 세력을 약화시켜 참가학회가 지원하고 있는 야당인 신진당을 견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종교법인 심의회' 내부에서도 종교법인법 개정안

에 반대, 심의회의 재개를 요청하는 탄원서가 제출됐으며, 일본의 카톨릭협의회에서도 법개정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종교학비판' 발표 화제

일본 종교학회(회장 타마루)의 제54회 학술대회가 지난 11일부터 양일간 오키나와 국제대학에서 열렸다. 종교학회는 종교학뿐만 아니라 사회학 민속학 심리학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하는 학회인 만큼 연구발표 건수도 280여건에 달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특히 음진리교사건을 계기로 종교학 의미가 일본국내에서 활발히 논의되는 가운데 종교학의 모순, 비판에 관한 주제발표가 있어 화제가 됐다. 또한 중국 의역종 동대명교수님의 '종교문화와 오키나와'를 주제로 한 특별공개강연이 있었다. <미>

"정법으로 온 인류에 이익을..."

6차 세계불교승가대회 말聯서 12일성로

현대 사회에 있어 승가집단은 어떤 책임을 갖고 있는가. 세계 19개국의 불교지도자 6백여명이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의 불을 짚기 위한 제6차 세계 불교승가대회(WBSC 회장 오명스님) 대회가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에서는 '현대에 있어 승가의 책임'이란 주제에 대한 분과토론이 활발히 진행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동 선언문이 채택됐다. 참가한 각국의 불교지도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시공을 초월하여 인류 사상의 바탕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넘쳐 수용되고 있는 시점에서 변화해 가는 사회에 바르게 적응 하는 것이 세계 승가의 공동 과제"라고 지적했다. 또 선언문을 통해 불교지도자들은 "계행을 철저히 준수하고 부처님의 원음을 연구하여 자기화 시키고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입수해 증생을

이롭게 하는 불교를 이끌어 가자"고 다짐했다. 각국에 만연된 사이버 불교에 대한 책임은 정통 승가에게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 그러나 인식을 같이한 참가자들은 끝없는 자기 수련과 폭넓은 포교사업이 현대와 미래의 불교를 이끌어 갈 원동력이라고

19개국 6백여 지도자 선언문채택

제6차 세계불교승가대회에 참여한 각국의 불교지도자들. (사진: 김민준)

한 총무원법, 중앙종회의원 선거법, 승니법의 개정안 및 감사원법, 사회복지원법, 교육원법, 분담금징수원법, 특별위원회법, 사할법 제정안등 중헌정법개정안을 의결하게 된다. 특히 이날 종회는 중헌정법 개정위원회가 지난 8일 법규위원회회의의 심의를 거쳐 최종확정

28·29일 정기종회

태고종, 예산안등 심의

옥이이도 스님되다

통일영화 '카루나'에 출연중인 옥수리가 지난 10일 진관사에서 삭발식을 가져 화제. 이날 오후 2시45분부터 진관사법당에서 1시간 10분간 촬영한 삭발식에는 진관사 주지 진관스님과 총무 두진스님이 출연했다. <고영배 기자>

최종확정한 53명의 종회의원이 개원하는 이번 정기중앙종회에서는 △96년도 중단사업계획안 △96년도 중단 세입·세출 예산안 △중헌정법개정안 △기타 중단현안등이 논의된다. 특히 이날 종회는 중헌정법 개정위원회가 지난 8일 법규위원회회의의 심의를 거쳐 최종확정

목탁전

정성운 <취재2부 기자> 습을 진흥시켜 불교의 포교를 진작하고 불교문화와 민족문화의 창달에 기여하자"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역경사업을 진흥하자면 역경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동국역경원을 지원함이 가장

니 향사 모래 한알에 우주가 있도다. 그 속에서 나를 찾으리라 불은 불을끄고 불은 물을 씻으리라라는 법어를 내렸다. 통일예술전등 논의 태고종 한불총회 태고종 한국불교청년회(회장 도각스님)은 오는 26일 오전 11시 부산 불광사에서 정기대외원총회를 개최한다. 현집행부의 임기가 오는 12월로 만료됨에따라 개최되는 이번총회에서는 96년도 사업, 통일문화예술대전개회, 조직강화의 건등이 논의된다.

역경(逆境)의 악순환인가

역경(逆境)은 역경(逆境)의 악순환인가. 또다시 역경이 문제되고 있다. 지난 3일 개원한 조계종 제119회 중앙종회가 '재단법인 동국역경사업진흥회'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채택하며 수면위로 떠올랐다. 동국역경원에서 펴낸 <우리말 팔만대장경> 판매 수익으로 모인 3억1천만원의 종자돈으로 지난 8년 설립한 재단법인 동국역경사업진흥회가 정작 역경진흥에는 소홀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현재 역경사업진흥회의 재산 규모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

하지만 모래 한알에 우주가 있도다. 그 속에서 나를 찾으리라 불은 불을끄고 불은 물을 씻으리라라는 법어를 내렸다. 통일예술전등 논의 태고종 한불총회 태고종 한국불교청년회(회장 도각스님)은 오는 26일 오전 11시 부산 불광사에서 정기대외원총회를 개최한다. 현집행부의 임기가 오는 12월로 만료됨에따라 개최되는 이번총회에서는 96년도 사업, 통일문화예술대전개회, 조직강화의 건등이 논의된다.

역경(逆境)의 악순환인가

역경(逆境)은 역경(逆境)의 악순환인가. 또다시 역경이 문제되고 있다. 지난 3일 개원한 조계종 제119회 중앙종회가 '재단법인 동국역경사업진흥회'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채택하며 수면위로 떠올랐다. 동국역경원에서 펴낸 <우리말 팔만대장경> 판매 수익으로 모인 3억1천만원의 종자돈으로 지난 8년 설립한 재단법인 동국역경사업진흥회가 정작 역경진흥에는 소홀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현재 역경사업진흥회의 재산 규모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

확실한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역경사업진흥회가 설립된 지 10년이 넘도록 역경사업이 원만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은 역경사업진흥회가 설립목적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진흥회는 92년부터 95년까지의 임대로 수입만도 어렵잖아 4억여원에 이르는데, 1억9백만원 을 지원했을 뿐이다. 이에따라 중앙종회는 지난 15일 역경사업진흥회가 고유사업 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동국대 또는 종단에 환원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추진할

위원회를 '조계종산하 법인대책'에 설치했다.

중회의 이같은 결의에 대해, 지금까지는 무관심하더니 돈이 있다고 하니 관심을 가지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부정적인 의견도 없지 않다. 그나마 어려운 가운데 기금을 마련해 법인화 해왔으니 이만큼의 재산이 모인 것이 종단에 넘겼으면 어찌 되었겠느냐는 반문이다. 향후 역경사업진흥회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종도들의 관심이 높다. 일부에서 우려 하듯 이권쟁기기가 아니라, 조계종단이 도제성공 포교와 함께 3대사업으로 천명한 역경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 불교TV 사장 태승스님과 외환신용카드 남영진사장이 조인식에서 서명한 후 인사를 나누고 있다.

불자편익사업 활발

bn과 BBS가 불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사업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bn은 지난 15일 마포 가든호텔에서 외환신용카드사와 'bn 비자카드' 제휴

비자카드 제휴 이의 공익자금 활용

발행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bn 외환비자카드를 신용카드로 같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익의 0.1%가 불교 공익자금으로 활용 된다. bn은 불자기업인도와 협의를 거쳐 각종 불공공사업에 할인혜택을 받고자 하는 불자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함께 bn은 TV 불교통신대학 개설을 동국대 21세기 발전위원회와 협의 중이다. 동국대대학이 교육과 학적을 관리하고 bn이 운영과 방송을 맡게 될 불교통신대학은 실무 작업이 이미 마무리된 단계로

방송가 소식

광주 BBS 프로그램 편 포교·생활정보 강화

불교광주방송은 지난 1일 지역프로그램에 포교·생활정보를 강화하는 개편을 단행했다. 매일 아침 8시30분부터 30분간 방송되는 '무들의 아침'은 풍자적인 멘트를 가미하여 지역소식을 전하고 매주 금요일에는 '나도 한마디' 코너를 통해 그 주간의 초점을 점검한다. 또 '오후의 오솔길 (14:10~15:50)'은 불교광주방송이 보유하고 있는 최첨단 디지털시스템의 장점을 활용한 고품질의 음악프로그램으로 전남대 성악과 이어진교수가 진행한다. 이와함께 '지금'은 불교시대(오후 4시10분~4시40분)는 불교계 주변의 이야기를 모아서 민족종교로서 불교의 역할을 모색하며 '불교문화 산책' '우리는 불자' '잊을 수 없는 스님' 등의 다양한 코너가 마련된다. **인** 비스와스박사 초청 불교문화 강연회 불교방송은 세계불교문화전행사의 일환으로 인도의 S.S. 비스와스박사(고교학자, 켈커 타바클관장)를 초청하여 '인도의 불교미술과 건축문화'를 주제로 오는 22일 오후 1시 중앙승가대회 정전관 대강당에서 특별강연회를 개최한다. **자** 자원봉사단 첫 법회 불교TV 자원봉사단(단장 강국서)은 지난 10일 오후 2시 마포 석불사에서 1백6명의 봉사단원이 참석한 가운데 첫 법회를 봉행했다.

생활속의 불교 50

배불리 먹고 배설하기를 거부한 그 사람

제 범무아(諸法無我). 이 세상의 온갖 살림살이 속에서 '나' '나의 것'이라고 집착할 게 본래 없다는 뜻이다.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새겨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부처님의 말씀은 공허한 메아리와 다를 바 없게 된다. 그리고 흘러드는 사람은 결코 진리의 편에 설 수 없게 된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세속의 편에서 아웅다웅하며 살다가 끝내는 허망하게 생을 마칠 각오를 해야 한다. 아니, 각오 이전에 이미 그렇게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살**은 유한하고 욕망은 무한하다. 고로 욕망의 충족이란 사실 신기무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를 대부분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그 신기무를 좇아간다. 나만은 그래도 그것을 잠을 수 있다는 뜻이.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자신의 욕망에 제갈을 물리는 길이다. 흔히 말하듯 자신의 분수를 알고 현실에 만족할 줄 알

라는 것이다. 제물이 아무리 많고 권력이 만인이 호령할 만하다 해도 그런 삶이 반드시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불안도 증폭되기 마련이다. **또** 하나의 길은 스스로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실은 나의 몫, 나의 소유가 아니라 나에게 잠시 맡겨진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다만 나는 관리자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순간부터 누구나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것은 소유하되 집착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소**유란 집착이다. 나요, 내 것이요, 하며 붙잡아 두려는 마음-애착과 소유는 동전의 앞 뒷면과 같다. 하지만 애착이 멀어져 나가면 소유는 그냥 소유로 남는다. 소유하되 소유하지 않는 마음-바로 무소유인 것이다. 굳이 나를 먹고 물 마시는 삶이어야만 무소유가 아니라 다만 관리자로 남는 삶도 무소유의 실천이 되는 것이다. 무아의 삶인 까닭이다.



제 범무아라고 하니까 그러면 다 버리고 어떻게 살라는 말이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다. 돈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권력도 버리고 아무것도 갖지 않으면 살을 영위할 방법이 마땅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본래 나, 내 것이 없다는 가르침은 '황금을 보기를 들 같이 하라'는 마음으로서의 방화학을 이룸이지 먹지도 입지도 말라는 가르침은 아닌 것이다. **재**물을 쓰는 사람과 재물에 의해 쓰이는 사람은 분명 다르다. 재물이 수단인 사람과 재물이 목적인 사람, 나아가 재물을 단지 관리하는 사람과 재물의 노예로 사는 사람의 삶은 판이하다. 비유하자면 전자는 흐름을 따르는 삶이요 후자는 흐름을 막는 삶이다. 세상만사 중에 고정불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 돈은 들어오면 나가게 되어 있고 권력은 잡으면 놓게 되어 있다. 윤라 가면 내려 와야 하고 내리막 길엔 오르막이 있다. 주먹 쥐면 피아 하고 뺨이 뺨이 되든 도리가 있다. 모든 것은 흐름이다. 흐름은 거역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이다.

협찬: 주인공